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김 현 정	소속(학부/과)	경영학과
파견 학기	2018-2		파견 국가	Canada
파견 대학	Niagara College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고등학교 시절에도 대학을 가서도 영어는 늘 공부하기 싫은 존재였다. 캐나다에 지원서를 낼 때까지도 살면서 토익을 한 번도 쳐보지 않았다. 면접 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같이 캐나다로 교환학생 간 사람들 중에 나만 토익 성적이 없었다. 사실 어학집중 과정은 영어성적이 없어도 교환학생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영어를 써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제가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될 것 같아서 지원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출국 전 준비사항은 2차례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세히 알려준다. 항공권도 에듀글로브에서 예약해주고 비자발급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준다. 미리 서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홈스테이를 했는데, 캐나다로 떠나기 전 학교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홈스테이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다 상관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잘 생각하고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양이나 개를 싫어한다면 No를 체크하기를 권장한다. 캐나다 사람들 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지만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Yes에 체크한다면 캐나다 생활 내내 개나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나도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홈스테이 주인이 큰 개를 키우고 있었다. 그 개가 순한 덕분에 적응을 잘해서 이제는 개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나처럼 해피엔딩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출국 전 준비사항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영어공부를 미리 해서 가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캐나다로 떠나기 전 영어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가서 생각해보니 미리 회화나 단어 같은 것은 준비해서 가면 더 빨리 영어가 늘 수 있는 것 같다. 토익보다는 스피킹 공부를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Niagara College는 온타리오주의 웰랜드와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본과 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우리처럼 EAP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웰랜드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었다. 웰랜드는 토론토에서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가기 전에는 웰랜드가 다른 도시처럼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12월부터 눈이 많이 오니까 2학기에 가게 된다면 부츠를 준비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온다.

버스 배차 간격도 등하교 시간에만 노선별로 한 시간에 두 대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한 시간에 한 대만 운행되었다. 주말에는 운행을 아예 하지 않는 노선도 있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에 제약이 많았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오리엔테이션 날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 시험을 모두 본다. 말하기 시험은 원어민과 직접 일상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고 듣기와 문법은 같이 진행하는데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 레벨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쓰기였던 것 같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더라도 일단 길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레벨마다 분위기가 다르니 참고해서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았던 레벨은 레벨 3였다.

수업 과목도 레벨 테스트에서 진행했던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에 독해가 추가되어 시간표가 짜여진다. 독해와 쓰기, 말하기와 듣기, 문법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된다. 일주일에 24시간 수업을 듣게 된다.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았다. 진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사랑하는 것 같았고 열정이 넘치셨다. 영어수업 외에 교양수업을 한 과목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우리학교 학생들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타 대학 교환학생 친구들이 신청했었는데 첫 수업을 들어가고 바로 포기했다. 생각보다 캐네디언들과 수업 듣는 것은 어려웠고 영어수업과는 분위기도 다르고 조별로 하는 활동도 많아서 영어가 부족한 교환학생이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교양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영어실력이 많이 늘 것 같다. 하지만 추가로 수업을 더 들어도 학점으로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홈스테이를 했다. 홈스테이 배정은 복불복인 것 같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걸어서 5분 거리부터 최대 30분 거리까지 다양하게 배정받았다. 그래도 다행히 버스를 타면 한 번에 학교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학교 한국인 친구들의 경우 환승을 해야 하거나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홈스테이를 배정받아 학교 등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봤다. 학교와의 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음식인 것 같다. 보통 아침은 씨리얼이나 토스트를 먹고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샌드위치를 싸거나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서 학교에 가서 먹고 저녁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 우리 호스트는 음식솜씨도 좋으시고 다른 집보다 잘 챙겨주셨는데 다른 학교 친구 중 한 명은 채식주의자 호스트 때문에 집에서 육류를 아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고, 저녁을 부실하게 챙겨주는 경우도 많이 봤다.

홈스테이비는 처음 홈스테이에 입주했을 때 두 달 치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한 달에 750CAD로 매 달 1일 전에 현금으로 지불했다. 홈스테이비 때문에도 잡음이 살짝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달에 보름밖에 살지 않는데 몇몇 호스트들이 한 달 치 홈스테이비를 요구했었다. 다행히 학교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취해 해결되었지만 돈 문제로 호스트와 부딪히게 되니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캐나다 사람들은 공과 사 구분이 확실했다. 그런 문제로 사이가 불편해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홈스테이비에 아침, 점심, 저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을 잘 챙겨 다니고 저녁을 홈스테이 가족들과 먹는다면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EVENT가 있다. 동물원을 가거나,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등 다양한 곳을 무료로 갈 수 있다. 우리가 낸 수업료에 참가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VENT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요일에 가는 활동이면 목요일 오후 3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말에 특별히 혼자 어디를 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참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안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다. YMCA는 한 달이나 하루 이용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수영이나 요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안에 카페테리아에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을 수 있고 팀홀튼, 서브웨이, 피자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공간도 함께 있다. 코어라는 곳에서는 햄버거나 푸틴 같은 음식을 팔고 원한다면 술도 사먹을 수 있다. 포켓볼과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있다. 코어에서는 화요일, 목요일마다 공짜 아침을 제공해주어서 자주 즐겨 먹었다.

도서관 안에 컴퓨터가 있어서 과제를 하거나 프린트를 할 수 있었다. 프린트는 유료로 선 충전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학교 프린트 하는 방법과 꽤 유사하다. 도서관에도 열람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쿼이어트룸이라고 좀 더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도서관 이외에도 컴퓨터실에 가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강 시간에 도서관, 컴퓨터실, 쿼이어트룸에 가서 미리 과제를 하면 하교를 하고 나서 좀 더 편하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부가세가 포함된 우리나라와 다르게 캐나다는 메뉴판에 표기된 가격은 세금과 팁이 제외된 가격이다. 언제나 세금(13%)과 팁(10%~15%)이 포함될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캐나다 사람들은 여유롭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운전을 할 때도 무조건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차를 세우고 기다려준다. 행동이 느려도 다 기다려주고 한국인이 볼 때 답답할 수도 있다. 캐나다 사람들의 여유를 배울 수 있다. 버스 기사님들도 친절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캐나다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직업이든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힘든 직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생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언제든지 직업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은퇴할 때 또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신기했다. 여러 번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보았다.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실 한국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음식이 입에 안 맞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을 가고 싶어 했는데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웠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생에 한 번쯤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